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송호신문 창窓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 13호

2018학년도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



지난 9월 2일 우리대학교 간호과가 수업연한 4년제로 지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은 4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학생 및 교수 지원, 행·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의 하위 22개 심사항목에서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를 통과하고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사학위과정으로 선발하며, 현재 재학생과 2017년도 신입생은 3+1제도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기회가 열린다.

안미정 간호과 학과장은 "대학 전 구성원이 철저히 준비를 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4년제 지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간호교육을 통한 인성과 핵심간호역량을 갖춘 전문 간호인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과는 '2015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5년 국가고시와 졸업생 취업률에서 100%를 달성하였으며 우수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민지 기자

횡성군 공직자 CS Leaders 과정 3기 개설



지난 6월 20일 우리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횡성군 공직자를 위한 CS Leaders(고객 관리사)과정 3기가 개설되었다. 개강식은 창조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규호 군수와 수강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본 과정은 우리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 채용식 교수가 주요 교육을 담당하고, SNP Global, (사)한국정보평가협회와 협력 진행한다. 횡성군 공직자 6급 이하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이론·실기교육 40시간과 자격증 취득 교육 24시간, 약 9일간 총 64시간을 교육한다.

이 날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친절 체감도가 높아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CS Leaders(고객 관리사) 과정 4기는 2016년 10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김도연 기자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 수료식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선두주자로 나서다



지난 8월 30일 우리대학교 송호관 1층 세미나실에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일환인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횡성군, 우리대학교 산학 협력단, (주)케이프라이드가 연계하여 횡성한우를 이용한 신메뉴 개발 및 가공제품을 통한 조리전문 인력양성과정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33회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24명의 조리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료생 중 취업 희망자는 지역 내 식품가공 업체에 우선 채용할 예정으로 교육생들의 취업연계를 돕는다.

수료식에는 횡성군 김상호 부 군수, 자치행정과 윤석윤 계장, 기업유치지원과 이원영 계장, 기업유치지원과 손현주 주무관, 송호대 이기호 기획실장, 김익홍 사무처장, 최연임 입학처장, 김나영 산학협력 단장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수료식을 빛내주었다.

횡성군 김상호 부 군수는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이 올해로 2년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횡성군 특화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였다. 소선민, 한가람 기자

2016년 강원지역 전문대 총장협의회의 개최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에 우리대학교 보건과학관 6층 평생직업교육 회의실에서 '제2차 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7개의 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특성화사업 평가 등 전문대학이 직면한 현안과 전문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대학교 이기평 총장은 인사말에서 "도내 모든 대학이 어려운 시기에 전문대학 총장협의회를 송호대에서 갖게 됐다"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 전문대 총장협의회는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등 총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김한솔 기자



박명철 교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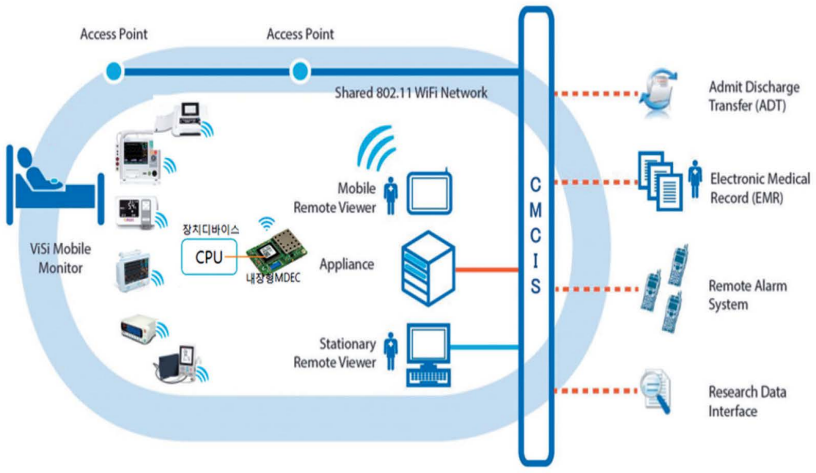
사제 간 공동 연구로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에 기여하다



우리대학교 교직교양부 박명철 교수(교학처장 및 NCS 지원센터장)가 지난 8월 14일부터 사흘간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2호관에서 개최한 '201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논문은 박명철 교수, 정현철(11회 졸업생, ㈜메디칼써프라이 연구원) 동문이 공동으로 연구·발표한 '내장형 MDEC 모듈 기반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내장형 MDEC 모듈'은 생체정보측정 장치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사이에서 중계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각 업체별로 상이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내장형 MDEC 장치로 동일한 데이터 방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조를 통합한다. 따라서 병원은 각기 다른 업체의 생체정보측정 장비로도 병원 환자 전체의 생체정보를 중앙관제실에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효율적 의료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현재 원주 세브란스에서 임상 실험중이다.



한편, 두 사람은 '2014 한국컴퓨터정보학회'에서도 '지그비(Zigbee)를 이용한 동물질병예방감시 시스템의 설계'라는 공동 연구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사제 간 지속적인 연구로 공로가 더욱 빛난다고 볼 수 있겠다.

박명철 교수는 지난 6월 11일 한국중독범죄학회로부터 '학술공로상'을 수여받았으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겸 강원지회장과 학술분과위원장, 본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민지 기자

여름방학특강

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역량 강화의 기회 마련해…

우리대학교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하계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광대명리조트과(CS Expert, 조주기능사 자격증) 보건행정과(의료정보관리사), 치위생과(전공수행능력 향상), 방사선과(전공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임상병리과(컴퓨터 활용 직업기초, 전공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호텔외식조리과(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스포츠레저과(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과정, 전공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방사선과(국가고시 준비) 등 11개 과 중에 8개 과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공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호텔외식조리과 이정빈 학생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활용하여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기 능력도 쌓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해수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우리대학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청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공고에 따라 위탁기관 신청서를 제출,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선정된 것이다.

학교측은 교육생들에게 기숙사 제공, 학교 반경 내 통학버스 운영, 식당 이용 등 편의를 제공했다. 참석인원은 486명으로 1기(6.20~7.1)와 2기(7.11~7.22)로 나누어 진행됐다. 교육은 보건과학관 7,8강의실, 송호관 평직대 세미나실, 창조관 종합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육교사 일반과정, 원장사전직무, 원장일반과정, 1급 승급교육 등 다양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원장일반과정의 교육을 받은 꾸러기어린이집 이수정 원장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들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척 더운 날씨에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보육 정책 및 어린이집 동향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보수교육을 통해 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소선민 기자

보건계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캠프' 실시



우리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일 '맞춤형 취업캠프'를 보건과학관 종합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이 캠프는 2017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방학 중 대학에 상주하는 간호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학생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건계열 채용 파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예절, 이력서·자기소개서 1대1 첨삭, 모의면접과 개인피드백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취업전략에 대한 1대1 컨설팅을 받았으며 직무·인성에 대한 모의면접으로 실전과 같은 면접훈련을 받았다.

한편 취·창업 지원센터에서는 입사서류 경진대회와 면접경진대회 등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혜진 기자

토익, 중국어 등 '무료 어학 교육 강좌' 지원합니다

지난 9월 7일 우리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학생들의 어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토익, 중국어 등 '무료 어학 교육 강좌'를 개강했다.

어학 교육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어학원의 전문 어학 교수진을 초청하여 대학이 지정한 '평생직업교육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10주간 실시한다. 학교 측에서는 "기존에는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일 중국어 과정을 새롭게 열어 매주 금요일에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어학 강좌는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전공분야별 취업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전공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식 평생직업교육대학장(관광대명리조트과 교수)은 "실제 산업체 현장과 전공수행능력에 필요로 하는 어학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스포츠레저과 이재건 학생, 아시아대학 축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출전



스포츠레저과 2학년 이재건 학생(축구부 소속)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태백에서 열린 '제 3회 아시아대학 축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 했다.

소속된 대한민국 A팀에서 막내인 이재건 학생은 "우리대학교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무척 자랑스럽다"고 전했으며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경기를 치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A팀은 9월 1일 홍콩과의 첫 경기를 치르면서 5-0 대승을 거뒀다. 김현국(한양대)의 프리킥 득점을 시작으로 이재건이 연달아 득점하고, 채정관(고려대)이 연달아 득점하며 3-0 전반을 마쳤으며, 후반전에 이재건이 2득점을 하여 해트트릭(축구경기에서 1명의 선수가 1경기에서 3득점을 하는 것)을 기록했다.

한편, 9월 2일 한국 C팀과의 경기에서도 4-3으로 승리를 했다. 이 대회는 강원도 태백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신재영 기자

제 31회 전국남녀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단체 종합 부문 1위'



우리대학교 스포츠레저과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1회 회장배 전국남녀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제 2차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참가하여 단체종합부문 1위를 차지하였다.

본 대회(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주최)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호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웨이크보드 대학부 단체종합 부문 1위(1학년 이락규·장성호, 2학년 이상훈), 수상스키 트릭 부문 개인전 1위, 개인종합 부문 2위(1학년 하세호), 대학부 수상스키(토너먼트) 단체 종합부문 3위(2학년 김진찬, 1학년 하세호) 총 4개의 부문에서 수상했다.

박영남 학과장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선수권대회에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재영 기자**

2017학년도 코엑스 수시 박람회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코엑스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진학사 주최로 우리대학교 외 70개의 대학부스가 설치되었으며, 2017학년도 전문대학 총 모집인원의 84.7%인 17만 8790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만큼 박람회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우리대학교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심층상담을 통해서 교과과정과 진로 및 면접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우리대학교 간호과, 방사선과, 뷰티케어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홍보도우미로 참여해 수험생들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이 날 홍보 도우미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김지원 학생은 "우리대학교의 특성화, 각 학과들의 특색 및 취업, 미래 전망 등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입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2017학년도 수시 1차 모집을 9월 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약 350여명이다. **김한솔 기자**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지난 8월 30일 우리대학교 송호관 1층 평생교육직업대학 세미나실에서 교학처 장학담당부서가 주관한 201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국가 근로 장학생 선발은 지원 부서별로 8월 19일 5시까지 지원서를 받아, 면접 선발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소득분위, 지원동기, 태도 등을 토대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장학생은 교학처 2명, 기획실 2명, 사무처 2명, 평생교육원 1명, 그리고 도서관 3명, 입학처 11명, 학과실습보조 1~2명, 교외 횡성대성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각 8명, 3명으로 학교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각종 업무 보조를 맡는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차미선 학생은 "스스로 용돈도 벌고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께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며 "병원으로 배정받았는데 전공을 살려 의학용어나 기초의학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이번 기회에 많은걸 배우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소선민, 이한효기자**

지동원 선수 '멘토-멘티'로 만나다



지난 6월 20일, 축구 국가대표 지동원 선수(스포츠레저과 전공심화과정 3학년)가 우리대학교 스포츠레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멘토 역할을 했다.

스포츠레저과 학생 30명을 만난 지동원 선수는 '후배들과의 멘토-멘티의 만남'이라는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성장하기까지의 시련, 전문 스포츠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세와 자기계발 등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동원 선수는 후배들에게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현재의 내가 없었다. 훈련을 힘들어하기보다 내 꿈을 이룰 원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하며 후배 축구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격려했다.

지동원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구단인 'FC 아우크스부르크' 소속의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 시리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박정현 기자**



지난 9월 7일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 전원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에 소재한 한강유치원(원장 강정욱)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본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한강유치원은 매년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유아교육기관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유치원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설명과 교육철학을 담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자유롭게 유치원 내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은 각 교실마다 비치된 교재·교구, 유아들의 작품과 환경,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이날 유치원을 방문한 김세희 학생은 "유치원의 큰 규모와 깨끗한 환경에 놀라웠다"고 말했으며 교육 및 유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감상한 후에는 "원장님께서 이론과 실제현장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깨닫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본 유치원 건물은 1천여 평에 달하며 총 4층 건물로 8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로는 옥외 놀이터, 텃밭, 수영장, 도서관, 요리실, 실내놀이방 등이 있으며 전국 최초로 기관 내부에 놀이치료실이 마련되어 원아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김해수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인턴 전원 합격!

지난 8월 22일, 13시 대명리조트 인턴면접이 홍천 비발디 파크 체리동에서 실시됐다.

면접 하루 전 인턴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이 우리대학교 창조관 2층 식음료실습실에서 채용식 교수 지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33명의 인턴면접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턴 발령은 경주, 삼척, 델피노, 비발디, 양양, 홍천 소노펠리체, 제주 샤인빌, 일산 엠블호텔, 단양, 양평 등 총 10개 업장으로 배치됐다. 인턴은 9월 1일자로 시작되며 정규직 전환은 2017년 8월 예정이다.

제주도 샤인빌에서 인턴 근무 중인 심호준 학생(관광대명리조트과 13학번)은 "서비스매너실습 강의와 모의면접, 자소서 쓰는 요령 등 학교에서 실기위주로 이루어진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처음 인턴생활은 힘들었지만 점차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대명)리조트과는 2008년 (주)대명레저산업과 고용연계형 MOU를 체결한 국내 첫 기업브랜드 특화학과이다. **한가람 기자**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

우리대학교 도서관 개방 시간을 연장한다.

2016년 8월 22일~12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임시로 시간 연장하여 개방한다. 기존의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 운영에서 매주 월, 화는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에 대해 유아교육과 서성호 학생은 "도서관 개방 시간이 연장되면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학업 및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한효 기자**

창宬 4기 신입기자 취재일기

♥ 한가람 기자



제가 교내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글 쓰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학기 초 우연히 수습기자 모집 공고를 페이스북에서 본 것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기회를 잡고자 당차게 바로 신청 하였지만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좋아하기만 하고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다 다른 기자 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 편집장 언니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 주어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수습기자가 되고 기사를 쓰면서 어려운 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신문에 사진을 넣기 위해서는 직접 찍거나 사진 사용허가도 받아야 했고,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해야 했으며 기사 마감 날짜도 늦지 않게 맞춰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깔끔한 문장으로 기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처음 하는 저에게는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검토하고 마감하고 신문을 포장하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학교 친구들이 제 기사를 보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기사를 쓰다 보니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과 소식과 학교 소식에 저절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식기자가 되어서 더 많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싶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학보사는 저에게 기회이면서 또 다른 배움터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한효 기자



처음 신입기자로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실 기자가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었고, 처음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소속된 곳이기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 기사를 맡았을 때에는 매우 떨렸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가서 말은 잘할 수 있을까'하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인터뷰해야 할 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계속 찾아가거나 부탁드렸는데도 시간이 안 맞아 마감 기한이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기자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상상하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직업의 속사정에 대한 작은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자뿐 아니라 현재 쉽다고 생각하는 일 또한 그 이면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다는 말이 가슴 속 깊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신문기자로서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이고 20살 성인이 된 나이에 처음 맡은 중요한 직책이기에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 김해수 기자



안녕하세요. 이번 2016년 신입기자로 선출된 김해수라고 합니다.처음 기자 일을 시작할 땐 솔직히 '재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초·중·고 시절과 다르게 대학 다니면서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문사에 지원했습니다. 아직 제가 학교에 대해 낯설지만 학교의 중요한 행사나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기쁘고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학교의 이모저모를 취재하고 기사 작성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신문에 써야 될 내용이라고 인터뷰하면서 같은 과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자 생활은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점을 꼽자면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자료를 부탁하면 제때 주지 않아서 기사를 쓸 수 없다는 점 말고는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학교 기자로서 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학교생활도 즐겁습니다!!

♥ 박정현 기자



제가 처음에 신문사에 들어왔을 때 긴장도 되고, 앞으로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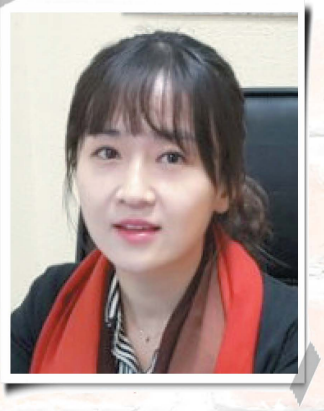
처음에는 정식기자가 아닌 수습기자라서 선배님들 도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감이 나진 않았지만 2학기 들어와서는 정식 기사를 쓰고, 자료를 얻기 위해 학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뜻 깊은 작업 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처음 쓰다 보니 아무래도 고쳐야 할 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신문사 선배 기자님들의 많은 도움과 친절함 때문인지 잘 고쳐나가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평상시 신문 같은 것을 잘 읽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신문기사들이 눈에 보이고 한 번씩 읽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신문사를 통해 좋은 습관도 생기고 많은 정보와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어 행복합니다.

♥ 신혜진 기자



항상 글 솜씨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기자를 모집하는 송호신문을 보고나서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경험이 없어서 면접보자마자 떨어질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선배님이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주신 덕분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습기자가 되고나서 처음 기사를 쓰기 시작할 때 글 쓴 경험도 별로 없어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을 때 선배님께서 괜찮다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고, 쓰고 지우기를 계속 반복했으나 도움을 받고 마무리를 지어서 기사를 보낼 때면 내가 기자를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자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배님들께 배워보니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단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사를 쓰는 과정이 어려운데 교정하시는 선배님은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수습기자에서 정식기자로 임명될 텐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책임감이 많이 생겼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로 오신 교수님과 조교선생님을 인터뷰하다



방사선과 이주영 교수님

1.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방사선과 교수로 부임하게 된 이주영입니다. 송호대학교 방사선과에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교수진과 활동력 있는 현장지도로 향후 방사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2.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라"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하려 애쓰는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인데, 저의 전공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전공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업에 있어 높은 취업률을 유도하는 학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통해 적용 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면 병원에서도 송호대학교 방사선과를 선호할 것이며, 높은 취업률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산학 간 긴밀한 협조로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의료시장의 다변화 속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에 반영하겠습니다.

4. 교수님께 방사선 분야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방사선이란 '소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방사선 분야는 의료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핵의학, 종양학, 영상의학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의학을 전공하였는데 최신 영상기술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일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가져왔습니다. 단편적인 기술이 아닌 마음을 전달하고 나로 인해 좋아지는 모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방사선 분야라 생각합니다.

5.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과 관련된 분야의 실력향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예절을 갖추고 글로벌 시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길 바랍니다.

방사선과는 병원 및 기업에서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력향상을 위해 학업에 매진한다면 어렵지 않게 국가시험을 합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회와 좋은 취업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최고의 방사선과가 되는데 헌신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대학교 학생들 모두와 함께 단단하고 강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소선민 기자



방사선과 정연경 조교 선생님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사선과 조교로 오게 된 정연경입니다.

2. 송호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교수님과 행복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간 동기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학창시절과 학교가 많이 그리웠는데 마침 조교채용공고 소식을 접하게 되어 주저하지 않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3. 조교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방사선과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관련 사항이나 가끔 교수님들께서 도움이 필요로 하실 때, 학생들의 문의사항 등 학과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후회함이 없고자 단기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여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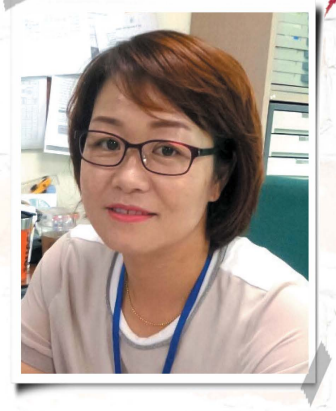
5. 대학생활에 비추어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기들을 인생의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희로애락(喜怒愛哀樂)을 같이 할 평생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바쁜 일상을 살다보니 정작 '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거울에 비친 겉모습을 보며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색하는 시간을 갖으며 '깊은 내면의 나'를 발견하여 더욱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송호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치위생과 신영옥 조교 선생님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송호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치위생과 조교로 오게 된 신영옥입니다.

2. 송호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올해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제안으로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조교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교와 학생사이의 다리역할이며 학과운영에 필요한 문서처리가 주 업무이고, 학생들이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교수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4.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학생활에 비추어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만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본인이 선택해서 송호대에 온 만큼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시기에 맞는 공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의 직업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는 지금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신혜진 기자

학과 탐방

호텔외식조리과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전문 조리 기능인을 양성하는 호텔외식조리과를 소개합니다.





1. 호텔외식조리과를 소개해주세요.

산업체 현장중심을 통한 산학일체형 교육과 체계적인 조리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국내외 특급호텔 및 외식산업 분야를 선도할 전문 조리 기능인을 양성하는 학과로 이태리요리, 불란서요리, 한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등 전통요리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최신식 실습실에서 국내외 특급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다양한 호텔외식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집니다.

2. 호텔외식조리과의 특별한 수업이 있나요?

저희만의 특별한 수업이 있다면 현장중심교육의 일환으로 학과 내에서 레스토랑 실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실이 설비되어있어 학생들이 실무수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3. 호텔외식조리과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알고 싶어요.

전국 규모의 다양한 요리대회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스펙을 쌓을 수 있게 하여 개별 학생들의 심화학습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끌어올려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분야에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다른 학과와는 차별화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4. 호텔외식조리과의 교수진을 소개해주세요.

가장 잘생긴 2명의 남자교수와 예쁜 여자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학과의 교수진들이 조리뿐만이 아니라 외식경영과 테이블코디 등 조리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공 교수님들이 있어 취업하고자 하는 전공에 취업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들이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늘 학생들을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5.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 제빵 기능사, 실기교사 자격증, 산업기사 (양식, 일식, 중식, 한식), 기타 민간자격증(푸드스타일리스트, 커피바리스타, 식품위생관리사)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졸업 후에는 특급호텔조리사, 유명외식산업체 조리사, 전문식당조리사, 체인 레스토랑 등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리 기능 교사와 강사, 식품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소선민, 김해수 기자

2016 대한민국 국제요리 경연대회 금·은·동 수상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는 지난 5월 19일~22일 서울 양재동 AT Center 제 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한국조리기능인협회 주관)'에 참석하여 라이브경연(코스요리, 학생부 부문)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각각 장수훈·이원형·정산·최재영·황명선(금상), 최성호·곽지원·장동현·전현규·손은지(은상), 최평화·강혜영·박지수·이진성·지상인(은상)이다.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단일 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이며 세계적 수준의 식품조리 및 가공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더 나아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협의하는 자리이다.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정삼식 교수는 "매년 대회 규모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산업체 현장 및 대회 환경과 유사한 실습환경 구축으로 실력 향상과 현장 적응력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장수훈 학생은 "참가한 학생들 모두가 야간특별수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노력했고, 학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전민지 기자

송호인들의 여름방학을 알아보자!

즐거운 여름방학, 소중한 추억 만들기!

뷰티케어과 2학년 박 은 빈

저는 이번 방학 동안 5박 6일간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학년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보내고 싶어서 떠난 기차여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큰 배낭을 멘 채로 오랜 시간 기차를 탔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친구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송호인들! 다음 방학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내일로 기차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한 지 용

저는 하계방학 기간 중 8월 1일부터 3일까지 어머니와 이모님 그리고 사촌 누나와 여동생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은 오이타에 다녀왔는데 오이타는 굉장히 작고 수수한 마을이었습니다. 작고 수수한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며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도자기 마을에 가서 아기자기한 도자기 공예를 보고, 오후에는 큐슈로 넘어가 우레시노 온천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은 후쿠오카 타워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으며 일본 여행의 마지막 기분을 마음껏 만끽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우레시노 온천입니다. 바쁘게 보냈던 하루의 피로를 온천에서 모두 풀 수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일본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유아교육과 1학년 임 수 정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방학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봉사를 합니다. 저도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병설유치원에서 교육봉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종이접기도 하고 실뜨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방학동안 이렇게 예비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보니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잘 익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위생과 2학년 엄 예 진

치위생과 학생들은 방학동안 병원실습에 다녀왔는데요. 처음 하는 실습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실수하면 혼이 날까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확실히 현장에서 경험해보니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습 나가기 이전에는 몰랐던 임상용어들을 많이 접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실습은 조금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 2학년 박 연 희

저는 방학 동안 학교에서 교내 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송호관 입학처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입학 관련 상담 전화를 받고, 학교 홍보용 팸플릿을 준비 작업하는 등의 업무를 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다소 힘들었지만 금세 적응하게 되었고, 점차 학교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용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을 여수로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방사선과 1학년 김 진 수

저는 방학 동안 춘천에서 친구와 자취를 하면서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짧지만 세상일이 무척 힘들다는 것도 경험해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한층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첫 아르바이트는 많은 배울 점이 있었으며 덕분에 보람찬 방학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과 1학년 석 준 영

저는 8월 1일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의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중에서도 태종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 암벽에 도착했을 때 탁 트인 넓고 푸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쁜 도시 일상에서 쉴 틈 없었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가만히 여유를 즐기는 것이 또 하나의 휴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성 4대축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에 다녀오다!



지난 8월 5일부터 사흘간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에서 '제 5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열렸다.

토마토 축제(둔내고랭지 토마토축제위원회 주관)는 '최고의 토마토와 함께하는 여름 가족 축제!'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날씨가 무척 더웠지만 축제를 즐기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가족적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역주민과 각종 지역회, 기업들은 풍부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본 축제는 토마토를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중 내가 보았던 가장 이색적인 이벤트는 토마토 높이 쌓기였다.

토마토를 가장 높이 쌓는 사람이 우승하는 이벤트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토마토를 쌓는데 집중하였고 그것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도 긴장을 하고 지켜보았다. 나는 이 날 토마토를 이용하여 멋진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축제참가비가 따로 있어서 체험을 하고 싶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축제 유지를 위한 비용이겠지만 가족 단위로 행사에 많이 참가했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와 놀이시설에 입장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지만 축제 장소에 인접한 계곡 덕분에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를 둔내 토마토 축제와 더불어 시원한 마음으로 달랠 수 있었고, 다양한 공연 가수들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즐거운 축제였던 것 같다.

소선민 기자

여행추천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도톤보리 마스코트 글리코상


◇유니버셜스튜디오 정문 사진이다.


◇햅파이브 관람차에서 내려다 본 풍경

인형 뽑기! 처음 일본여행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인형 뽑기 기계가 우리나라보다 발전되어있는 일본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일본의 문화, 음식, 여러 가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한명의 친구와 함께 간 일본 여행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친구가 바빠 내가 모든 계획을 짜야했다(그것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화를 불러일으킨다). 만약 친구와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혼자 계획을 짜야한다면 자유여행을 가지 말고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여행은 7월 11일 ~ 7월 15일로 4박5일 동안 다녀왔다. 여행 전 날부터의 설렘이 비행기를 탈 때는 최고조가 되었다. 비행기는 오후 2시 40분, 비행기를 이용하는 시간에 입국심사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보니 신기했다. 긴장되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던 입국심사는 별 일 없이 통과하였고, 아파트먼트식으로 된 숙소에 도착하여 짐 정리를 하고 오사카 도톤보리를 걸었다. 도톤보리는 도톤보리 강 주변에 형성된 유흥가로 오사카를 상징하는 대표거리이다. 우리는 거리를 열심히 구경한 후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일본 지하철을 이용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으로 이동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유니버설 올란도 레조트와 비슷하며 비슷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온통 일본어였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는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관광객을 따라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는 크기가 너무 커서 '오늘 다 구경을 할 수 있을까'하며 걱정 했지만 발에 물집이 생길 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며 놀이기구를 탔다. 그 날은 비가 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눈치게임에 그만 실패하여 패스권을 사용해도 기다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도 오사카에 간다면 꼭 가기를 추천한다.

셋째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택박물관으로 향했다. 주택박물관에는 오사카 관광필수인 기모노 체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9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도 사람이 많아 2시 30분으로 예약 하고 햅파이브로 갔다. 햅파이브는 관람차로 오사카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는 풍경은 아름다고도 신기했다. 햅파이브에서 내린 우리는 주택박물관에서 기모노를 입고 일본 식 건물들을 구경하였다. 일본식 건물들도 신기하였지만 밤과 낮의 효과를 주어 밤거리를 거느니 그 효과가 정말 신기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온천을 이용했다. 이곳도 관광객이 많아 한국어로 나레이션이 계속 나와서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여러 탕들이 있어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은 도톤보리를 다시 걸으며 쇼핑을 하였다. 쇼핑하면 꼭 가야한다는 돈기호테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기호테에 있는 상품들을 거의 못 보고, 쇼핑을 계획했던 물건들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의 일본 여행의 마지막 하루가 지났다.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다시 한 번 오사카를 찾고 싶다는 것이다. 4박 5일의 일정을 계획하였지만, 못 가본 곳도 있었고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가보고 싶었다. 여러 계절에서 느끼는 오사카의 다양한 변화를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싶다. 우리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분명 '다름'이 있는 오사카!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김도연 기자

횡/성/소/식

섬강 둔치에 야간 '감성커피' 축제가 열려

– 향기롭고 감미로운 커피의 향연이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히다 –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횡성읍 섬강 감성마을 앞에서 '제 1회 횡성 야간 감성커피축제'(횡성군커피연구회 주최, 축제공동위원장 최경화·이덕원)가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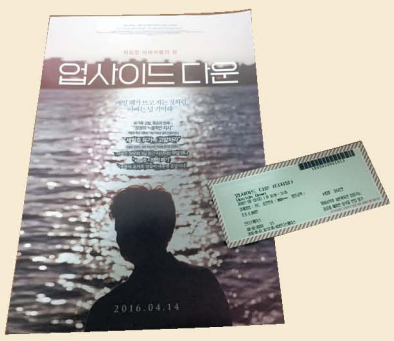
18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커피축제는 한규호 군수, 함종국 도의원, 김은숙 군의회 부의장 등이 방문했으며, 사흘간 1500여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축제는 '농경생활과 감성커피 문화의 만남'과 '한 여름 밤 커피 그리고 막걸리와 함께 추억을!'이라는 주제로 진행 됐다. 핸드드립 커피와 함께 어울리는 농경 음식, 바리스타 대회, 로스팅 경연대회, 민속공연 등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덕원 위원장(송호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 학과장)은 "횡성은 소도시 가운데 커피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수도권 및 원주와 가까워 농경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커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조선말기 커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재현하는 등 커피 축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지 기자

'업사이드 다운' 영화를 감상하고…



'업사이드 다운' 영화는 세월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인 4명의 아버지와 16명의 전문가들이 나와 이야기를 끌어간다.

처음 이 영화의 포스터를 우연히 접했을 때는(안에 표시된 글자는 보지 않고 오직 이미지만 본 상황이다.) 그냥 단순한 성장스토리 형식의 영화인줄 알았는데 우연히 예고편을 보고 단순한 성장스토리 형식의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문제를 어떻게 담아냈는지, 유가족들이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영화관을 찾았다.

나는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그랬고, 보고 나서도 한참동안 답답함에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에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답함, '왜 우리 정부는 배가 기울어져가는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 하고 밀려드는 답답함, 그 답답함들이 나의 가슴을 옥죄어 오는 듯했다. 16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능력함에 비난을 하고, 유가족인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죽은 경위에 대해 진실을 알려 달라 외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왜 우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냐는 의문이 든다. 무엇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는 신나는 시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죽어나가야 했는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 정부는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 덮기만 급급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터라 내심 의심이 든다. 정말 우리 국민을 잘 지켜줄지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란다. 깊은 바다 속에 있을 순수한 학생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에서 답답함의 물결이 한없이 밀려온다.

신재영 기자